

이미 면책된 빚, 채무불이행자명부 압박 못해



박규익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채무자가 회생, 파산절차를 신청해 채무를 면책받게 되면, 면책받은 채무의 범위 내에서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채권자 입장에서 돈은 받지 못하더라도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해 법원 결정으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식 기록으로 남길 수 있을까.

개인 채무자 A가 있다. A는 B에게 돈을 빌려 사용한 뒤 이를 갚지 않았고, B는 A에게 돈을 반환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상황이었다. 승소 이후 판결이 확정됐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A가 돈을 갚지 않자, B는 채무자 A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대법원은 “그 사이 채무자 A가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았음을 들어 B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이처럼 판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주고, 이를 통해 채무 이행을 유도하는 간접적 강제 효과를 가진다.

또한 일반인이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 거래 안전을 도모하는 기능도 있다. 반면, 도산절차에서 진행되는 면책 제도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회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채무 책임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면책받은 채무자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허용하는 것은 면책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즉, 도산절차에서 면책 결정이 이뤄지면 단순히 ‘채무는 존재하지만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채무에 대한 책임 자체가 소멸하게 된다.

파산, 면책 절차에서 누락된 채권은 어떨까. 실제로 파산, 면책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A는 채권자인 B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했다. 이 경우 B의 채권에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에 대해 면책결정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예를 들어, 법원은 ▲면책신청 직전까지 카드 사용 및 연체가 지속되고 독촉장을 수령했음에도 신용카드 채무를 누락한 경우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지급독촉을 지속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음에도 대여금 채무를 누락한 경우 ▲사업상 거래

관계를 반복적으로 유지하면서 거래명세서를 발행하고 정산 협의를 진행했음에도 물품대금채무를 누락한 경우 등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했으면서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반면, ▲채권자가 오랜 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 경우 ▲사업이 폐업한 후 정산이 불분명하게 이뤄졌고 장기간 이에 대한 분쟁이 없어 거래가 종결된 것으로 인식했던 경우 ▲채권자와 채권액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추후 추가 청구를 제기한 경우 등에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채무자 A가 채권자인 B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 역시 악의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면책 결정으로 채무에 대한 A의 책임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처럼 도산 관련 소송에서는 채권, 채무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적법하게 면책결정이 이뤄졌다면 면책된 채권에 대해서는 더이상 채무자에게 그 책임을 추궁하기는 어렵다. /법무법인 바른

벼랑 끝 몰린 석유화학



이지수첩
유혜온 (산업부)

버티던 석유화학 업계에 중동발 변수가 덮쳤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격화되면서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동시에 뛰고,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원료 조달 차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여수산업단지의 여천NCC는 최근 원료 수급 문제로 제품 공급 불가를 통보하고 공급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3월 인도 예정이던 원료 나프타 도입이 지연되면서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가 더 뼈아픈 이유는 업황 자체가 이미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한 상태다. 실제 주요 NCC 업체들의 평균 가동률은 최근 약 80%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체들은 설비 가동을 줄이거나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었다. 여천NCC 역시 이미 3공장 가동을 중단한 채 1·2공장만 운영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가 부담까지 커졌다. 석유화학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은 최근 톤당 590달러에서 730달러 수준까지 약 25% 상승했다. 문제는 시장이 공급 과잉 국면이어서 오른 원가를 제품 가격에 제때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마진이 줄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dhaledhale@metroseoul.co.kr

원료 도입 차질 가능성도 커졌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나프타 재고는 약 2주 안팎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입 나프타의 절반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들어오는 만큼 중동 정세가 더 악화하면 원료 수급 불안이 곧바로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원유 수입 가운데 약 70%가 중동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업계에서는 NCC 평균 가동률이 60~70% 수준까지 낮아질 가능성도 거론한다.

이미 저수위의 구조에 놓인 업계에 원가 상승과 원료 조달 불안이 한꺼번에 덮쳤다. 생산 차질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이중고를 넘어 삼중고에 직면한 모습이다. /dhaledhale@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9일 (음 1월 21일) 표준토리(www.fortunetory.com)

- 48년생** 큰 업체와 계약이 성사됩니다. **60년생** 지금 하는 일을 유지해야 합니다. **72년생** 사랑과 우정, 가족과 우정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84년생** 원하는 것 중 작은 것이 이루어집니다.
- 49년생** 조금의 마음가짐은 하루를 힘들게 합니다. **61년생** 전업, 개업은 다음으로 미루세요. **73년생** 여행을 하면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85년생** 먼저 정한 버를 고집하세요.
- 50년생** 평생 숙원이 앞에 있지만 조금 기다리세요. **62년생** 심신이 고달픕니다. **74년생** 가까운 친인척에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86년생** 애정운이 금전운은 길하 나 곧 나가지게 됩니다.
- 51년생** 과한 의존은 자신에게 피해를 줍니다. **63년생** 누명이나 사기를 조심하세요. **75년생** 오늘은 일찍 귀가하세요. **87년생**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긴 안목을 가지도록 하세요.
- 52년생** 몸에 상처를 꼭 치료하세요. **64년생** 현실을 직시하고 냉정해야 합니다. **76년생** 다 끝낸 일이 다시 불거집니다. **88년생** 친구들과의 약속은 잠시 다음으로 미뤄보세요.
- 53년생** 남쪽에서 귀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65년생** 좋은 운이 돌아오니 소리대로 처신하세요. **77년생** 심고 가꾼 곡식이 열매를 맺습니다. **89년생** 주위의 유혹에 넘어 가지 마세요.
- 54년생** 심장과 소화기에 병이 들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66년생** 마음의 안정이 중요 합니다. **78년생** 매매가 이뤄지거나 큰 이익은 없습니다. **90년생** 지나친 신경은 건강을 해칩니다.
- 55년생** 심기가 편치 못하니 내일을 기약하세요. **67년생** 돈이 막히는 날입니다. **79년생** 내 자신을 돌아 보는 하루를 보내세요. **91년생** 천생배필은 쉽게 오지 않는 법, 마음을 비우세요.
- 56년생** 무리한 투자는 금물입니다. **68년생** 상대가 양보하지 않으니 중요한 협상은 미루세요. **80년생** 자녀문제로 고민하게 됩니다. **92년생** 자기 발전을 위해 꾸준히 매진하세요.
- 57년생** 두려움을 멀리하고 강직하게 밀고 나가세요. **69년생** 재물운이 아주 좋습니다. **81년생** 만족할만한 결과로 일을 마무리합니다. **93년생** 자신 있는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 58년생** 노력을 하면 얻는 것이 있습니다. **70년생** 육신이 힘들지만 친구가 찾아옵니다. **82년생** 매매는 미루고 소송은 당겨 진행하세요. **94년생** 노력하지 않으면 하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 59년생** 몸과 마음이 분주하나 소득이 없습니다. **71년생** 티끌모아 태산이 될 수 있는 하루입니다. **83년생** 결과에 연연하면 실력발휘가 안됩니다. **95년생** 과감한 변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김상회의四季 복삼재 악삼재

삼재가 든다고 해서 겁먹을 일은 아니지만 일단 삼재의 재(災)자가 ‘재앙 재’자이다 보니 겁부터 나는 것도 이해가 간다. 어떤 모녀가 함께 상담을 왔는데, 모녀가 모두 삼재였고, 둘 삼재였던 작년에 모녀가 모두 힘들었던지라 놀삼재인 올해가 겁이 난다는 것이다. 어머니인 K씨는 올해 2026년도가 병오년이니 뭔가 더 안 좋은 일이 가중될까 근심스러워하였다. 작년에 집을 사고, 팔면서 크게 손실을 본 까닭이며, 딸은 신미생으로서 삼십대 중반인데 아직 미혼으로서 작년에 결혼 얘기가 오갔던 남친과 사소한 일로 다투다 헤어지니 삼재 때문인가 하고 있었다.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좋지 않은 일이 반복되거나 일마다 꼬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 흔히들 아홉수 또는 삼재가 들어서라는 말을 한다.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무릇 아기가 태어날 때는 모두 기뻐하며 축복한다. 그러나 살아가는 일은 생사가 고락이다. 내 뜻대로 되는 일보다는 그렇지 못한 일들이 태반이다. 잘하려고 한 일이 결과가 다르다면 상심은 더욱 크다.

누군가는 맨날 어렵기만 하다. 금수저로 태어나도 자신이 받아먹을 그릇이 되지 않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집안 자체가 휘청이며 불행해진다. 자수성가한 사람이 더 위대해 보이는 이유다. 선조들은 그 이유를 어떻게든 찾아내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구했다. 삼재는 일반적으로 천재(天災: 천재지변)와 지재(地災: 교통사고나 상해), 인재(人災: 사람으로 인한 사고나 보증, 사기)로 나누는데, 이것과 역에서는 삼살(三殺)에 연결된다. 즉, 겁살(劫殺), 지살(地殺), 천살(天殺)을 말한다. 자신의 팔자에 겁살, 지살, 천살이 있다면 삼재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다고 보는 것이 지론이다. 피흉귀길, 원화소복 모두 이러한 바램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옆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서울은 그랜드의 월드프린을 출간하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2	6	8	3	1	
	9	7				
	4	1	3	2		
5	9					
	1				5	
					8	6
		9	8	6		5
			9	4		
4	6	8	1	5	2	

				7	2	
8	5	2	9			
	2			9	1	
4	5		2		8	
		7	3			
	9	5			4	3
8	7			1		
		6	8	4	2	
2	3					

6	2	8	9	1	8	9	7	
8	9	6	7	6	2	9	1	
7	1	9	2	9	8	6	8	
9	8	1	6	9	8	2	7	
8	9	6	2	7	9	1	8	
2	2	7	1	8	9	8	6	9
2	6	2	8	1	9	7	8	9
9	7	8	6	2	6	1	2	8
1	8	8	9	7	2	9	2	6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86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70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